

고통: '마라'가 된 '나오미' (1:1~5)

서론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1:1):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참 신앙을 소유했던 자의 이야기

2. 주제 및 신학

- 1)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인간관계에서 신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
- 2)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에 달린 것이다.
- 3) 작은 사람을 위한 크신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펼쳐짐.

3. 개요

서론: '마라'가 된 '나오미'(1:1~5)

I. 모압에서 돌아오는 나오미(1:6~22)

1. 여호와께로 돌아가다(1:6~14)
2.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1:15~22)

II. 룻과 보아스의 만남(2:1~23)

1. 우연도 하나님의 손안에(2:1~7)
2.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아온 자(2:8~16)
3. 소망: 기업을 무를 자(2:17~23)

III.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눕는 룻(3:1~18): 청혼과 약속

1.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3:1~7)
2. 기업 무를 자의 위로와 약속(3:8~13)
3. 빈손으로 가지 말라(3:14~18)

IV. 보아스가 자신의 서원을 이행(4:1~12)

1. 아무개, 불성실한 기업 무를 자(4:1~8)
2. 보아스, 신실한 기업 무를 자(4:9~12)

결론: 작은 여인을 위한 크신 하나님(4:13~22)

I.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1:1~2)

1. 하나님 백성의 피할 수 없는 고통, 흉년(1): 구약 성경에서 134회 등장.
2.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모압에 가서 거류(창 12:10 / 삼상 17:12 다윗 소개)
3. 가족 소개(2): 엘리멜렉('나의 하나님은 왕') 나오미('기쁨') 말론('병든') 기룬('악한')

II. 계속되는 비극(1:3~5)

1. 나오미의 남편이 죽음(3): 이른 나이에 죽음. 귀향 대신 모압 정착을 선택
2. 두 아들의 결혼(4):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함. '오르바'와 '룻'
3. 두 아들의 죽음(5):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론적 진술

1. 하나님을 떠났던 한 여인이 경험한 비극을 생각하라.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2. '마라'가 된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회복의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다(1:6~14)

서론: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는 '마라'가 되었다.

I. 돌아오는 나오미(1:6~7)

1. 들은 소식(6a):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파카드'('세심하게 돌보다'): 하나님이 주어진 경우, '방문하다'의 의미.

2. 나오미의 선택(6b,7)

- 1)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슈브', 룻기 15회, 1장 12회) 하였음
- 2) '있던 곳에서 나오고' 세 여인이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갔다.'
- 3) 비교. 탕자의 귀환(눅 15장): 궁핍(13~16), 생각(17~19), 아버지께로 돌아감(20)

II.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권면(1:8~13)

1. 첫 번째 권면(8~9a)

- 1) 가라,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8a)
 - 2)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헤세드')(8b)
 - 3)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9a).
 - 4) 그들에게 입을 맞춤(9b): 자신에 대한 헌신의 관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
- 1'. 두 며느리의 반응(9b~10): 소리 높여 울었다. 안 됩니다.

2. 두 번째 권면(11~13): "내 딸들아(3회) 돌아가라." 며느리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

- 1) 나를 따르면 남편 없이 지내야 함(11~13a): 남편의 중요성(4회 언급). 미래가 없음
나는 남편을 둘 수 없고, 내가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아도 너희는 기다릴 수 없다.
 - 2) "여호와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13b): 나와 함께 가면 불행
- 2'. 두 며느리의 반응(14): 돌아가는 오르바 vs. 붙잡는 룻(인애를 베풀)

결론적 진술

1. '마라'의 고통에 있는 사람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2.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위에 룻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
3. 룻처럼 악한 자를 위해 사랑과 충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선택: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1:15~22)

서론: '마라'가 된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하고, 며느리 룻이 그를 붙좃는다.

I. 나오미의 세 번째 권면과 룻의 고백(1:15~18)

1. 나오미의 권면(15): *룻의 행복을 위한 진심 어린 배려

- 1) 보라, 네 동서는 돌아갔다('슈브'): '또래 집단'(같은 처지)인 동서를 통한 압력
- 2)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 포기할 것인가?
- 3)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슈브')

2. 룻의 고백(16~18):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충성과 연대감

- 1) 강한 결심(16a): "내게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 2) 살아 있는 동안의 충성(16b): 당신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함께 하겠다.
- 3) 신앙고백(16c):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 2)' 죽음에 이르는 충성(17a):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 1)' 강한 결심(자기 저주의 맹세)(17b): 죽음 외에 당신을 떠나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함

Q. 룻의 결심과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고통 중에 보여준 나오미의 믿음과 사랑

II. 돌아와 애가를 부르는 나오미(1:19~22)

1. 베들레헴에 도착과 여인들의 반응(19): "나오미가 아니냐?"

2. 나오미의 애가(20~21): *애가(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탄식, 충분히 슬퍼해야 함)

- 1) 요청(20a,21c):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 2) 이유(20b,21b)
 - A.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마라르'의 사역형), 괴롭게('라아'의 사역형) 하셨음
 - B.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 *텅 빈 인생. 흉년,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늙은 불임의 여인.

3. 그러나 절망은 없다(22)

- 1)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왔음: 믿음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한 자는 희망의 시작
- 2)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호와와의 율법(레 23:22)과 이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

우연도 하나님의 손안에(2:1~7)

이전 내용: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 애가를 부르고, 며느리 룻이 그와 함께하였다.

I. 보아스에 대한 소개(2:1)

0. 베들레헴 상황: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고(1:6),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축제 시기(1:22).

But 나오미와 룻은 풍성한 수확과는 관련이 없음. 남편, 자식, 땅이 없는 과부들.

1. "유력한 자": 남자, 강하고 능력 있는. a mighty man of wealth(KJV)
2. "엘리멜렉의 친족": 계대결혼을 통한 기업을 무를 수 있는 자. 중요한 것은 그의 의사.

II. 나오미를 향한 룻의 요청(2:2~3)

1. 모압 여인 룻의 요청과 나오미의 허락(2)

- 1)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삭줍기 관련 율법. 레 19:9~10, 23:22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한 행동

- 2)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행동

2.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3)

- 1) 추수 밭으로 나간 룻(3a):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 2) 우연히('미크레' / 운명, 우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 룻(3b)

Q. 우연한 발길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인가? 우연은 섭리의 한 방편(창 24:12,15; 삼상 6:9)

III. 보아스의 등장과 베는 자들과의 대화(2:4~7)

1. 등장(4a): "마침" 그 밭에 왔음. "마침"('히네')은 "바로 그 때" 또는 "놀랍게도"를 뜻함.

2. 인사(4b): 보아스(the Lord be with you!), 베는 자들(the Lord bless you!)

3. 베는 자들을 거느린 자의 룻에 대한 평가(6~7):

- 1)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여인(6):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 2) 겸손하고 대담한 요청(7a): 베는 자들 바로 뒤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소서.
- 3) 근면한 여인(7b):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 그는 종의 평가로 인해 룻에 대하여 호의 가짐. 일상생활에서 감동을 주는 자 되어야 함

믿음: 여호와와 날개 아래 나아온 자(2:8~16)

서론: 보아스와 룻이 밭에서 나눈 대화. 동심원 구조. 보아스는 구속자 예수님의 모형.

1. 보아스의 첫 번째 말(8~9): 따뜻함과 놀라운 배려

- 0) "내 딸아 들으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따뜻이 대함(3:10,11).
- 1)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1:14, '붙좃다')(8): 풍성함!
룻은 추수하고 남은 이삭이 아니라, 베는 자를 따르면서 이삭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 2)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음(9a): 보호
룻을 일하는 소년들로부터의 폭력, 해, 성추행이나 성폭력에서 보호할 것을 명령.
- 3)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9b): 육체적 필요 공급
추수 시작할 때는 건기. 더운 날씨에 일하며 일하는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도록 허락.

2. 룻의 말(10): 엎드려 절하며 질문.

"나는 이방 여인" 어찌하여 내게 은혜('헨')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니카르', 알아보다)

3. 보아스의 두 번째 말(11~12): 중심 내용.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 1) 수평적 차원(11):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참조. 1:16,17; 창 12:1 여성 아브라함)
- 2) 상을 주시는 하나님(12a):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함
- 3) 수직적 차원(12b):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네게"

2'. 룻의 말(13)

- 1) 요청: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2:2,10)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
- 2) 감사: 하녀와도 같지 못하나, 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음

1'. 보아스의 세 번째 말(14~16):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는 호의와 사랑

- 1) 룻을 식사에 초대(14):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식탁공동체 안에 들어와 배불리 먹음.
- 2)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15,16):
 - A.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 B.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15)

결론: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라. 예수님의 환대를 기억하고 누려라.

소망: 기업을 무를 자(2:17~23)

서론: 밭에서 돌아온 룻과 집에서 기다리던 나오미가 나눈 대화. 동심원 구조.

0. 서술: 근면한 룻(17~18)

- 1) 저녁까지 밭에서 보리를 줍고, 타작(17): "보리 한 에바썸"(22리터)
여인이 하루에 이삭을 주워서 얻을 수 있는 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이었다.
- 2)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드림(18): 그가 주운 것 +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14)
⇒ 보아스(≒예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텅 비었던 두 여인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짐

1. 나오미의 질문(19a):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불가능.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10)에게 복이 있기를"

2. 룻의 대답(19b): "오늘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누구와' 일했는지 밝힘)

3. 나오미의 찬양(20)

- 1)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는 "헤세드"(자발적 사랑과 헌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었다.
- 2)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 "우리 기업을 무를 자('고엘' / 동사 '가알') 중의 하나"
그는 부유하고 선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자신들을 구출해 낼 수 있는 자!

2'. 룻의 말(21): 자신에게 주었던 보아스의 말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줌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다바크', 1:14; 2:8)."

1'. 나오미의 충고(22):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믿으면서 지혜롭게 자부에게 충고.

- 1)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소년들"이 "소녀들"로 바꿈.
- 2)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룻의 안전 염려(문자적 번역. 그러면 다른 자의 밭에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 & 대담한 중매 계획(?)

0'. 서술: 시어머니와 함께한 룻(23)

- 1)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시어머니께 순종.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들어옴.
- 2)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대략 7주.

결론: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라. 신앙 선배들의 조언을 경청하라.

순종: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3:1~7)

서론: 나옴이는 며느리 룻을 위해 중매 계획을 세워 지시하고, 룻은 순종한다.

I. 나옴이의 중매 계획(3:1~4): 하나님의 법('고엘 제도') 안에서 대담하게 길을 찾으라.

1. 룻의 안식과 복을 구하는 나옴이(1~2a): 질문 형식

1)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1): "안식할 곳"은 발바닥을 편히 하고 쉴 만한 곳을 의미(창 8:9). 결혼 통해 여인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상황 가리킴(1:9).

나옴이는 룻에게 가정과 남편을 구해주어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주기를 원하였다.

2) "(아타', 그런데 말이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2a)

기업 무를 자와 계대결혼의 의무가 있는 친족. 유력한 남편 후보임을 지적(2:1,20; 3:9)

2.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2b): 중요정보. "보라"('힌네' / 주의 환기).

타작과 곡식 까불기는 축제. 일한 사람들과 흥겨운 시간 보낸 후, 타작마당에서 잠을 잤음.

타작하는 밤과 타작마당은 결혼과 기업 무름과 후손을 이야기하기에 최적의 조건.

3. 나옴이의 명령(3~4)

1)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3a)

과부로서 애도 기간을 끝내고(삼하 12:22,23),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동.

2) "그에게 보이지 말라"(3b): 그가 충분히 먹고 마셔서 마음이 흡족한 상태까지 기다리라.

3)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 들어가, 그의 발을 드러내라(4a): 겸손히 보호를 요청하는 자세

4)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4b): 룻의 행동을 보고 그가 분명 반응을 보일 것임.

II. 룻의 순종(3:5~7): 신앙선배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미래가 열린다.

1. 룻의 대답(5):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하면 거부당할 위험, 신변과 목숨의 위협도 있었지만 기꺼이 순종.

2. 룻의 순종(6~7)

1)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함(6)

2) 보아스가 누운 곳에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웠음(7)

결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라. 성경과 신앙선배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미래가 열린다.

기업 무를 자의 위로와 약속(3:8~13)

서론: 룻기의 절정. 한밤중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 두 여인의 운명은 이 만남을 통해 결정된다.

I. 보아스의 질문과 룻의 대답(3:8~9)

1. 밤중에 깜짝 놀란 '그'(8~9a):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네가 누구냐?"

2. 룻의 대답(9b)

1) 정체성

- A. "나는 룻"(self-definition):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인간 룻(not 모압, 며느리, 아내)
- B. "당신의 여종": 보아스 앞에서 '자기 인식'이 상승. **이방 여인**(2:10), **하녀**('시프하' / 허드렛일을 하는 낮은 계급 여종, 2:13), **여종**('아마' / 곁에서 시종드는 높은 계급의 여인)

2) 대답한 요청

- A. "당신의 옷자락('카나프', 문자적으로 '날개')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청혼 요청(겔 16:8).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자기에게 그의 날개로 덮어주기를 요청(2:12)
- B.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을 무를 자"('고엘'): '고엘'(명서, 10번), '가알'(동사, 11번).
룻기 후반부에서 곤경에 빠진 사람을 위한 두 제도, "계대결혼"과 "기업 무름"이 연결된다.

II. 보아스의 위로와 약속(3:10~13)

1. 룻을 향한 축복과 약속(10~11)

- 1) 축복하는 이유(10):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A. 룻은 매력적인 젊은 남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음"(10a)
B.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이삭줍기)보다 나중(결혼 통해 고엘 제공)이 더하다"(10b)
- 2) 위로와 약속(11)
A.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B. "현숙한 여자"(2:1, 공동체 안에서 받는 칭찬, 유능한 여인)임을 성읍 백성이 알고 있다.

2. 상황 인식과 맹세(12~13)

- 1) 나는 기업 무를 자 but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 2)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안전, 명예, 공적 처리 위해.
- 3) 여호와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 그가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고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결론: 우리는 기도의 주체이며 기도 응답의 주체. '고엘'이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한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3:14~18)

서론: 타작마당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고

I.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말과 행동(3:14~15)

1. 새벽에 일어난 룻(14)

- 1)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 창 19:31~33에 나타난 룻과 비교.
- 2)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음": 보아스의 당부 때문.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2. 보아스의 행동(15):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 주고"

- 1)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 룻의 시어머니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무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업을 무를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
- 2) 인애의 상징적 선물: 나옴과 룻의 텅 빈 삶을 자신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II. 룻의 보고와 시어머니의 반응(3:16~18)

1. 시어머니의 질문(16a):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2. 룻의 보고(16b~17)

- 1)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림(16b):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 약속
- 2) 결정적인 증거 제시(17)
 - A.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 B.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텅 비었던 삶을 풍성히 채울 것(비교. 1:21)

3. 시어머니의 반응(18): 하나님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

- 1) 충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 2) 이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결론적 진술

1.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지 않는 예수님의 인애를 누려야 한다.
2. 가족과 이웃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
3.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라.

불성실한 기업 무를 자(4:1~8)

서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무를 자가 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I. 성문 앞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보아스(4:1~2)

1. 성문에 올라간 보아스(1a): "성문"은 소통과 왕래의 중심지이며, 재판이 진행되는 장소.

룻을 위해 기업 무를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는 성문에 올라가 았음.

2. 마침("바로 그 때")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감(1b)

1) "아무개":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4:10) 관심이 없는 자는 자기 이름도 끊어짐

2) "이리로 와서 았으라.": 법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업 무를 자를 법정에 불러 았힘.

3.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법정에 았게 함(2)

1) "장로들": 성읍의 문제들을 책임지는 지도층 인사들. '열 명'은 법적 판단 위한 필요 인원

2) "장로들과 모든 백성": 장로들 외에 성읍 백성들도 참여(4:4,9,11). 증인 역할.

II. 불성실한 기업 무를 자(4:3~8)

1. 보아스의 제안(3~4): 나오미가 땅을 팔려하는데 네가 사라. 너 다음은 나. 긍정적인 대답

2. 보아스의 역습(5): 기업을 무르는 자는 이익을 탐하지 말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함

1) 그 밭을 사는 자는 죽은 자의 아내 룻을 사야 하는 책임 有(레 25:25; 신 25:5,6)

2) 기업을 무르는 자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주어야한다.

3. 기업 무를 자의 변심(6~8)

1) 대답: 나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네가 무르라

2) 이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까하여(땅 값, 두 여인 부양, 아이 양육, 엘리멜렉 소유)

3) 제안: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그의 신을 벗음(거래 확정 & 수치, 신 25:7~10)

결론적 진술

1. 어려움에 빠진 가족과 이웃을 돕기 위해서('고엘'의 역할)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2.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라.

보아스, 신실한 기업 무를 자(4:9~12)

이전 내용: 보아스와 '기업 무를 자' 협의. '기업 무를 자'는 기업 무를 권한 포기, 그에게 양도

I. '기업 무를 권리'를 넘겨받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행한 연설(4:9~10)

1.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9a,10b): 기업 무름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인 역할을 요청

2. 증언할 내용(9b~10a)

1)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A. '죽은 자들을 위해': 죽은 가족들이 산 자들의 삶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게 할 것

B. '나오미를 위해': 죽은 자들이 남긴 것을 기업 무름을 통해 그녀에게 회복시켜 줄 것

2)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

룻을 통해 첫 아들을 낳으면, 그는 말론의 아들이 되어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신 25:5~10; 창 38:6~10).

II.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4:11~12):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1. 신부 축복(11a; 삼하 7:11)

1)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소서"

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2. 신랑 축복(11b,12)

1)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유력'('하일', 2:1; 3:11)은 능력과 힘을 의미. 강하고, 부하며, 덕을 행하고, 번성하여,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

2)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A. '베레스': 계대결혼 통해 출생(창 38:27~30). 그 가문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4:18)

B. '다말'과 '룻'의 유사점: 첫 결혼에서 아기 낳지 못하고 남편 사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대결혼을 통해 아들을 낳는 일에 적극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감(마 1:3,5)

결론적 진술

1. 고통 받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인애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유력과 유명한 길이다.

2. '고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감사하고 기대하라.

작은 사람을 위한 크신 하나님(4:13~22)

이전 내용: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의 선언, 장로들과 백성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

I.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시는 여호와(4:13~17): '텅 빈'에서 '채움'으로

1.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13): 하나님은 백성들과 장로들의 기도와 축복에 응답(11,12)

1)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됨(13a)

A. "죽은 자의 아내"(4:5) ⇒ "산 자"요 "기업 무를 자"인 보아스의 아내

B. 이방 여인(2:10) ⇒ 당신의 하녀(13) ⇒ 여종(3:9) ⇒ 현숙한 여인(11) ⇒ 그의 아내

2) 여호와께서 10년 동안 불임이었던 룻에게 임신을 주셔서, 그가 아들을 낳았음(13b)

2.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양과 축복(14~15): 비교. 성문에서의 법적 절차(남성 중심)

1) "여호와를 찬양하라"(14a): 여호와께서 오늘 그에게 '기업 무를 자'(아기) 주셨음

2) 아이 축복(14b,15a)

A.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 원함"(비교. 4:11)

B. "생명의 회복者"(텅 빈 삶을 회복) & "네 노년의 봉양者"(일용할 양식 제공)

3) 확신의 근거(15):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

3. 아기의 양육자가 된 나오미(16~17)

1) 아들들을(1:5) 잃었던 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16).

2) "오벳"(개인적 관점): '종' '경배者.' 텅 비었던 그의 삶을 풍요로 채울 것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공동체 관점): 손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풍요로 채울 것

II. 다윗에 이르는 족보(4:18~22): 작은 사람을 위한 크신 하나님

1. 족보: 10명의 이름.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씨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보여준다.

2. 교훈

룻기는 '엘리멜렉'으로 시작하여 '다윗'으로 끝이 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고백이 철저히 무너진 사사 시대, 이스라엘은 피폐하고 텅 비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풍요로 채우셨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작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이루셨다. 작은 사람을 위한 크신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

But Ruth replied, "Don't urge me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you.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